

보살의 길

2010년 봄호 제 41호



4월 9일 상반기 할머니지 나들이



사회복지법인 혜명복지원
혜명불교양로원



진 관 사무국장

생사(生死) 그리고

행복(幸福)의 허상(虛像)

부모가 주신 생명은 참으로 고귀한 것입니다. 이런 생명을 지켜가기 위하여 사람들은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행복해 지길 바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잘사는 사람이나 못사는 사람이나 나름대로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평생을 행복해 지길 원하며 살아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길 위에 때로는 죽음과 삶의 갈림길이 탁 치면 어떤 이는 삶의 길로 들어서고 어떤 이는 죽음의 길로 들어서기도 합니다. 어떤 길로 가던 인위적으로 그 길을 택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며, 자연의 법칙을 따라 어떤 길이던 가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생사의 갈림 길에서는 행복이란 하나의 허상으로 남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나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알면서도 우리네 사람들은 행복을 좇아 손을 허우적댑니다. 범어사(梵語寺)의 무비스님은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삶이란 무엇인가? 인연따라 세상에 관광 왔다가 돌아갈 시간이 되면 당연히 돌아가는 것이다” 그러니 고연히 마음 에태우며 잡히지도 않는 행복 같은 것을 잡으려고 애쓰지 말고 자연의 법칙에 맡기라는 것이 아닐까요? 또한 이런 말씀은 종교적인 사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법정스님은 무소유(無所有)를 말씀하셨습니다.

가지고 있으면 괴로운 것이고, 아무것도 없으면 편하다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말씀은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해하기도 어렵지만 실천하기도 어렵습니다.

다 아는 진리이나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누구든 행복을 추구할 권한은 있습니다. 보통사람도,

돈 많은 부자도, 살인자도,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행복이란 잡아진다고 잡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잡으려고 하는 것은 허상입니다. 모래위에 대궐을 짓고 돈을 곳곳에 쌓아놓고, 혼자 즐기고 놀면 이것이 행복일 수 없습니다. 내가 살만큼 가지고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으면 살아 갈만 하지 않겠습니까? 백세를 살아온 사람과 육십세를 살아온 사람이 생사의 갈림길에 섰을 때, 백세를 살아온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오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는 것과 비록 짧은 육십세를 살았지만 사람답게 살았다면 누가 행복하게 살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장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어떤 생을 살아 왔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네 삶의 궤적들을 반추해 보면, 행복은 그렇게 거창하거나 대단하지 않고 사소하고 진부한 일상 속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병고로 주야장천 침대에 누워 있는 사람에게는 자기 힘으로 걷고 바깥 바람을 쏘이는 일이 행복일 수 있고, 장기 수감자에게겐 석방 자체가 행복일 수 있으며, 춥고 배고픈 길인에게는 등 따뜻하고 배부른 것이 행복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행복이란 완전무결함보다 지루하고 따분하거나 무료한 삶 속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건강과 생명, 그리고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것이라 별로 귀한 줄 모르지만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비로써 그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끝으로 서산대사의 생과사의 말씀을 적으며 우리의 생을 반추하고자 합니다.

“생야일편부운기(生也一片浮雲起) 사야일편부운멸(死也一片浮雲滅)” 삶은 한조각의 뜬 구름이 일어나는 것이요, 죽음이란 한조각의 뜬구름이 흩어지는 것이다.

6.25전쟁을 격어 가며 수많은 역경고동 속에서 힘든 세상을 살아 온 걸 어떻게 설명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전쟁 중에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습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에게 말하면 전쟁, 가난, 슬픔, 배고픔 모를 것 입니다.

그런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 이제 제나이 75살입니다.

아들하나 있지만 몸이 건강하지 못해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되었고, 그런 아들 혼자 두고 양로원에 입소하였습니다.

처음 입소 전에는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치 못한 아들을 혼자 두고 입소하는 것에서부터 시설입소에 대한 두려움도 많았습니다. 입소 전에 상담도 받아보고 따로 찾아와 또 한번 더 보고 생각 생각 끝에 입소를 하였습니다.

양로원 생활의 즐거움

김 원 순어르신 (2006년 7월입소)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렇게 힘들게 결정을 내렸나 싶습니다.

양로원은 그냥 집이었습니다. 외출, 외박도 자유로워 언제든지 아들을 볼 수 있었고 내가 하고자 하면 무엇 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양로원안에서도 체조도 하고 색칠도 하고 가까운 곳에 노인복지관이 있어 자전거를 타고 다니기도 합니다. 아들과 함께 집에서 한숨만 쉬고 생활 할 때는 아무 대책도 없고 힘들기만 했는데 양로원 생활은 저에게 조금이나마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다만 아들을 옆에서 늘 돌봐주지 못해 못내 아쉬움과 미안함이 있지만 또 다른 생각으로 옆에 있다고 해결될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건강이 허락할 때 까지 지금처럼 아들집에 왕래하며 복지관도 다니며 양로원에서 이것저것 참석하며 건강하게 지내고자 하는 마음뿐입니다.



혜명양로원

그림봉사를 다녀와서

문일고등학교
2학년 이현우

금천구 시흥2동에 위치한 혜명양로원(재단:대한불교 조계종 도선사)으로 그림봉사를 갔다. 양로원에 계시는 어르신들께 작업치료를 위해 밑그림색칠을 도와드리 는 것인데 좋아하시는 프로그램중의 하나라고 한다.

처음 양로원을 방문했을 때 분위기가 좋구 매우 따듯함을 느꼈는데 어르신들의 행동과 표정에서도 그런 것이 나타나서 나도 기분이 그냥 좋았다.

서른 다섯 분 정도가 밑그림색칠을 하시는데 무지 진지한 표정으로 색칠을 하셔서 마치 초등학교 학생들 이 색칠공부를 하는 것 같았다.

여러 가지 색깔을 쓰시는 분도 계셨고, 좋아하는 색 한 두 가지로 그림을 완성하시는 분, 어두운색만으로 완성하시는 분, 하나 하나 계속 색깔을 물어가면서 그 림을 완성하시는 분 등 다양하게 그림을 그리셨다.

그림이 예쁘다고 칭찬해 드리면 기쁘게 웃으시면서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그 모습이 귀여워서 나도 모르 게 덩달아 즐거워 졌다.

가족이 있어도 사정상 양로원에 계신 분이나 가족 이 없어서 양로원에 계시는 분이나 모두 한 가족처럼 오순도순 지내시는 모습이 보기 좋은 한편, 그래도 가 족들과 함께 하실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 도 들어서 왠지 마음이 안타까웠다.

그림을 다 그리시고 나서 윗몸일으키기를 하시는 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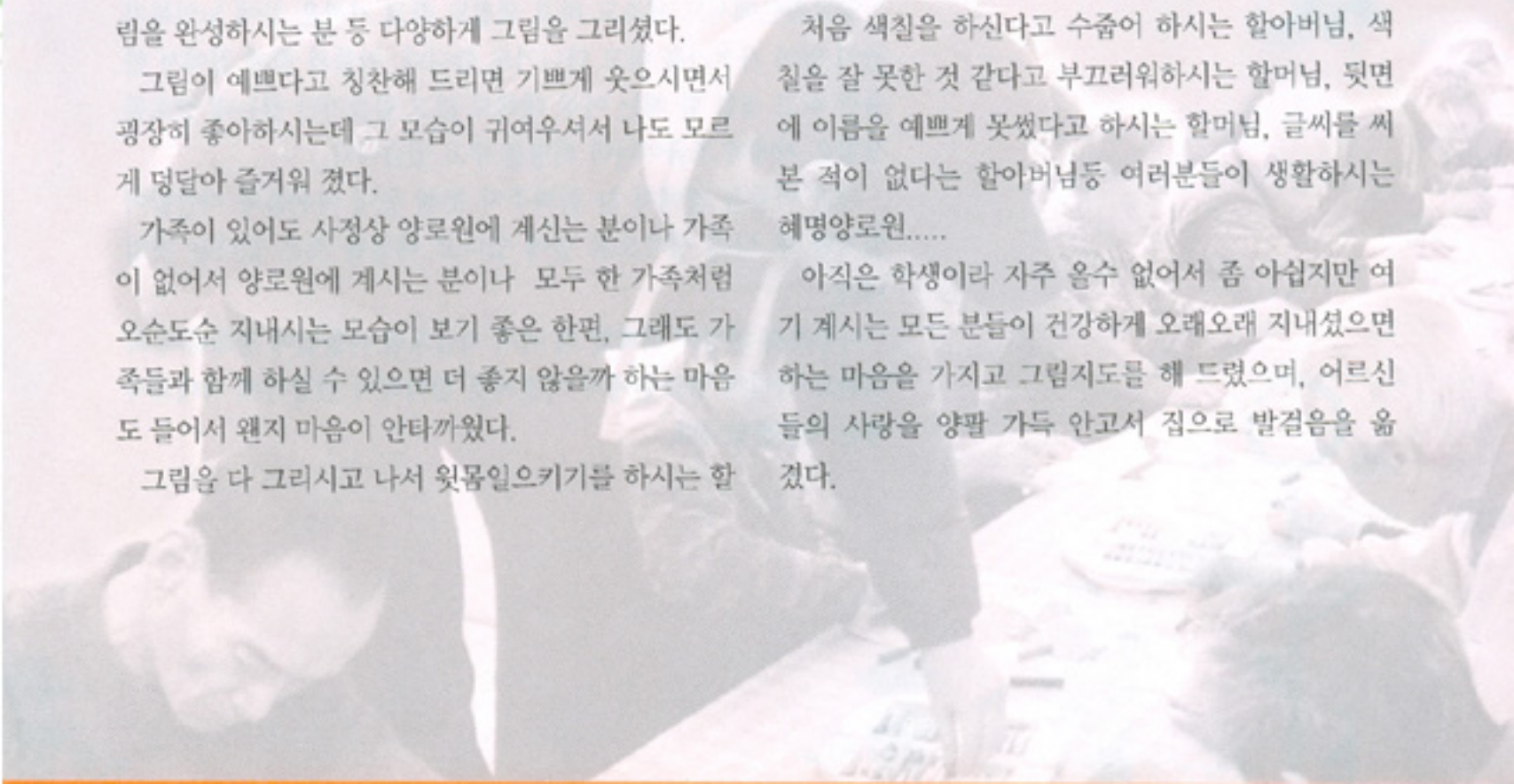
머님이 계셨는데 연세가 많으시다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다. 학생인 나보다 더 윗몸일으키기를 잘 하셨다.

그리고 네잎클로버 할머니님도 계셨는데 봉사자들에 게 네잎클로버를 선물해 주셔서 봉사자들이 붙인 별명 이다. 어디서 그렇게 많이 찾으시는지 봉사자들이 갈 때 마다 몇 개씩 선물해 주신다. 생각도 너무나 긍정적 이시고 직원들도 친절하고 항상 온화한 얼굴로 대해주 셔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신다는 말씀 을 듣고 불평불만이 많던 내 자신을 반성하게 되었다.

가족들과 함께 하지 못하고 양로원에 계시면서도 늘 밝게 생활하신다는 모습을 보면서 봉사를 하면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 즐거운 마음을 많이 가질 수 있다는 걸 느꼈다.

처음 색칠을 하신다고 수줍어 하시는 할아버님, 색 칠을 잘 못한 것 같다고 부끄러워하시는 할머니, 뒷면 에 이름을 예쁘게 못 썼다고 하시는 할머니, 글씨를 써 본 적이 없다는 할아버님등 여러분들이 생활하시는 혜명양로원.....

아직은 학생이라 자주 음수 없어서 좀 아쉽지만 여 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지내셨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림지도를 해 드렸으며, 어르신 들의 사랑을 양팔 가득 안고서 집으로 발걸음을 옮 겠다.



해명한마당



| 차밍제조 |

매주 수요일 오전에 김하는 강사의 명랑한 목소리에 맞춰 차밍제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4년째 자원봉사를 열심히 나오시는 우리 선생님, 앞으로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 평양민속예술공연 |

3월 23일 서대문평화통일협의회에서 주최한 공연을 할아버지 7명과 관람했습니다. 이북의 다양한 공연을 보여 색다른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 원예활동 |

4월 11일 봄을 맞아 어르신들과 마당에 이른 화단을 만들었습니다. 가을까지 볼 꽃 농사를 짓는 어르신들 손놀림이 바빴습니다. 어르신들 수고하셨습니다.



| 척사대회 |

제 7회 정월대보름 맞이 척사대회가 있었습니다. 남·녀 대항으로 이루어지는 대회는 사전 예선을 통해 준결승전, 결승전으로 진행했습니다. 이번대회는 할머니들이 우승했습니다. 척사대회는 선수와 관람하는 어르신 모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늘 오늘만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 영화관람 |

3월 19일 육혈포강도단 영화관람을 했습니다. 코믹영화로 어르신들이 관람하기 참 좋은 영화였습니다. 관람하신 할아버지들도 직원들도 재미있게 잘 봤습니다.



| 소방교육 |

3월 10일 구로 소방서에서 상반기 소방교육을 하였습니다. 화재시 대피법, 소화기사용법, 심폐소생술 등 어르신들에게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 사탕 목걸이 만들기 |

매월 1회 방문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우당바라에서는 화이트데이를 맞이하여 사탕목걸이를 만들었습니다. 2개를 만들어 당신 목에도 하나걸고, 좋아하는 친구에게도 하나 선물해 주었습니다.



| 치매교육 |

1월 15일 금천구 치매지원센터에서 치매선별검사지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보건소에서 방문하여 년 2회 검사를 실시하여 해 볼 기회가 없었으나 더 자주 직원들이 직접 하려고 교육을 요청했습니다.



| 상반기 할아버지나들이 |

4월9일 할아버지 15명을 모시고 송도 인스파월드와 월미도 유람선 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목욕하고 회도 먹고 유람선에서 쇼도 관람하여 오랜만에 신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어르신들 건강하세요.

혜명동점



시설개요

- 시설명 : 혜명양로원
- 운영재단 : 대한불교 조계종 도선사
- 개원일 : 1982년 4월 10일
- 설립자 겸 시설장 : 박재근 (현성큰스님)
- 정원 : 64명 (남28명/여:36명)
- 소재지 : 서울시 금천구 시흥2동 241-7

입소구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
2. 가족관계증명서
3. 수급자증명서
4. 건강진단서(보건소발행)
5. 증명사진 4장
6. 우리은행 통장
7. 주민등록증, 도장

입소대상 (무료입소)

- 입소대상 : 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입소신청
거주지동사무소(상담 및 신청)
관할구청(심사 및 의뢰)
금천구청(심사 및 의뢰)
양로원(상담 및 입소결정)

직원현황

- ▶ 총 16명
- 원장1명/ 사무국장 1명/ 시설과장 1명
- 간호사 1명/ 영양사 1명 /사회복지사 1명
- 생활지도원 5명/ 위생원 1명/ 서무 1명
- 조리원 3명

현재 입소인원

- ▶ 현재 입소인원 총 58명 (3월 31일 기준)
- 할아버지 : 28명 할머니 : 30명



▲ 1월 30일 120 다산콜센터 자원봉사단이 방문하였습니다.



▲ 2월11일 설을 맞아 금천구 의회에서 방문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

2010년 1월 1일 ~ 3월 31일

이승희, 민경숙, 소미숙, 최윤금, 박영숙, 유미애, 유른경, 한미정, 양영진, 김경은(밀그림색칠), 문덕녀(대림미용실), 임호순외 6명(치과진료), 금천보건소, 조규용, 윤소원, 조맹영, 김용기(그신대침술봉사팀), 조기환(물리치료), 임지현(건강체조), 백련사올림회, 김하늘(차밍댄스), 묵향법사, 지영옥, 최미자, 이순교, 김덕순, 정지윤, 황득효, 지오스님, 임길자, 황복순, 이금분, 민귀남(찬불가봉사팀), 이현옥, 배규인, 장소영, 한봉옥, 이선영, 한미정, 이영옥, 최금옥, 임은영, 안영미, 지춘자(반야회3기), 오정자, 유범열(아코디언), 대한적십자사, 하정자, 송길숙, 오유리, 박미자, 엄숙희, 심은숙, 권태숙, 김진화, 이은경, 박애하, 마경숙, 이은경(반야회4기), 이유숙, 이미화, 송영순, 주양희, 신종일, 박현주, 박향자, 신경이, 황현숙, 박지혜, 정진숙, 안형준, 김종윤, 박상준, 최태영, 김재형, 이준호(반야회5기), 박미란(말벗), 김동섭, 한은옥, 한정옥, 남미영, 최소희, 고영수, 안성수(우담바라), 이정순, 고병남, 권영순, 김미정, 박미옥, 전선순, 소미숙, 한종남(민들레모임), 조청길, 양병순, 남숙호, 장재창, 현군자(수지침), 이강택, 양승학, 임효정, 황영이, 이정애, 한미옥(알송달송구현동화), 백은자, 장은정, 이은경, 변상숙, 이영미, 임은영, 민현숙, 정용경, 이효숙, 김계숙, 한성아, 홍성정, 김민순, 김용자, 정수정, 이은순(반야회6기)

*진한색은 신규자원봉사자입니다. 반갑습니다.

후/원/자

*혹시 소식지에 기재되지 않으신 후원자님께서서는 넓은 이해를 바랍니다.

물품후원

반야회5기 봉녕사 백련사 다산콜센터 우리파이낸셜 해명보육원 푸드뱅크
 해명회(치공사협회) 사랑의 실천운동본부 웅진코웨이 금천구의회 권태인 보명사
 시흥5동자원봉사센터 캠프 연화사 서서울고등학교 한경애 서울노인복지협의회
 해명회(찬불가 부르기) 밀그림 색칠 단체봉사팀 서울시청 알송달송 구현동화 봉사팀
 삼각산 도선사

현금후원

윤재순 60,000	김효순 10,000	박성수 90,000	최형기 30,000	권기상 150,000	문금자 30,000
석혜영 20,000	구몽순 30,000	김동섭 500,000	김기영 300,000	이애자 10,000	한진택 300,000
백승풍 10,000	안정희 10,000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59,400		강윤호 100,000	정해창 200,000
구희근 40,000	이은정 20,000	독지가 172,000	이복자 20,000	박혜정 30,000	양보금 30,000
구 산 20,000	유규동 10,000	안효주 600,000	보명사 200,000	기업은행 500,000	마희전 40,000
박세진 20,000	이순자 60,000	유석하 15,000	황형순 5,000	황준순 15,000	김송희 20,000
서경연 30,000	남분식 150,000	신관호 15,000	이정복 20,000	이태영 50,000	한국거래소 400,000
박희광 20,000	한대규 100,000	영등포교도소 200,000		황재욱 10,000	서현종스님 20,000
오영자 275,682	문성연 10,000	문성훈 10,000	최 란 10,000	이모티콘 SM 독지가 450,000	
구수미 300,000	구충수 150,000	임옥수 150,000	구희관 20,000	박두영 100,000	양혜선 10,000

따뜻한 손길을 기다립니다

자원봉사자모집

- 모집대상 : 개인 및 단체 누구나
- 모집내용 : 노력봉사 - 어르신 숙소 청소, 목욕, 식당보조
프로그램 진행 및 보조 - 치매예방·여가프로그램 진행 및 보조
의료봉사 - 의료 관련 서비스 실시
정서지원봉사 - 말벗, 책 읽어드리기, 무연고 어르신 결연

후원자모집

- 후원내용 : 현금후원 - 일반후원 1,000원 이상, 결연후원 5,000원 이상
물품후원 - 생활에 필요한 의류, 생활용품, 쌀 등
식품후원 - 어르신들 입맛에 맞는 신선한 반찬류 및 간식류(과일, 빵 등)
가전후원 - 대형텔레비전, 김치냉장고, 재봉틀, 카세트 등
생필품후원 - 락스, 피죤, 옥시크린, 각종 세제 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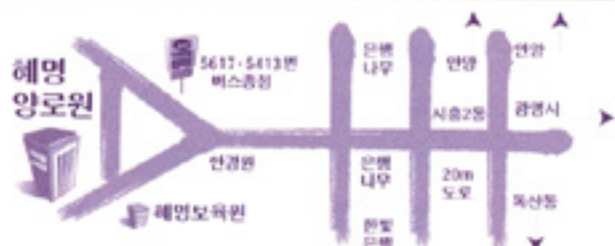
정성을 기다리는 후원금 계좌번호

- ① 지로번호 : 7655940
- ① 우리은행 : 1005-901-011284
- ① 예금주 : 해명양로원

자원봉사자와 후원자들에게 드리는 혜택

1. 해명양로원의 모든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2. 해명양로원의 모든 간행물을 받아 볼 수 있다.
3. 법인세법 제18조와 소득세법 제34조에 의하여 연말 정산 시 비용인정 및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로원 오시는 길



- 지하철 1호선: 시흥역 마을버스금천 01번 범일운수 종점 하차
- 지하철 2호선: 구로디지털역 5617번 종점 하차
신림역 5413번 종점 하차

양로원 홈페이지

www.hmtown.co.kr

발행처 : 사회복지법인 해명복지원 해명양로원

발행인 : 박재근(현성 큰스님)

주 소 : 서울시 금천구 시흥2동 241-7번지

연락처 : TEL 02)802-6765

FAX 02)892-2068